



#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경제 등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 양국 간 이산화탄소(CO<sub>2</sub>) 국경 이동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시작
- 제32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는 10. 31.(화) 호주 시드니에서 제32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경제 등 에너지 분야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80년부터 개최되어 온 양국 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공식적 협력 통로(채널)로서 작년 한국에 이어 올해 호주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세계(글로벌) 에너지·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등 분야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위원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경 간 이산화탄소(CO<sub>2</sub>) 이동 협약 체결 작업을 호주와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위원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 차관보, 산업과학자원부 차관보 등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호주 가스전 사업의 시추 인허가 지연 등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촉구하고, 양국 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경 간 이산화탄소(CO<sub>2</sub>) 이동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번 위원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제4차 한·호 신에너지 포럼(주호주한국대사관 주최)」, 「한·호 수소·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비즈니스 세미나」 등 행사에도 참석하여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30 부산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또한, 호주의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프로젝트)인 쉐브론 사의 고르곤 현장을 우리 기업·기관과 함께 방문하여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의 성공적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이번 호주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관·기업들이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분야에서 총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붙임】** 1. 한·호 수소 및 CCS 협력 MOU 체결  
 2. 제32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개요

담당 부서 <총괄>	자원산업정책국 통상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재은 (044-203-5240)
		담당자	사무관	박주형 (044-203-5251)
	자원산업정책국 석탄광물산업과(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정대환 (044-203-5259)
		담당자	주무관	김형윤 (044-203-5258)



구분	제목	체결주체		MOU 내용
		한국측	호주측	
수소경제	Oakjee Green Energy 프로젝트 협력 MOU	삼성물산 건설부문	Oakjee Energy	▶ (협력분야)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공급, 수출 인프라 등
	Mid West Clean Energy 프로젝트 협력 MOU	삼성물산 건설부문	Pilot Energy	▶ (협력분야)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공급, 수출 인프라 등
CCS	한-호 CCUS 협력 MOU	K-CCUS	CarbonNet	▶ (협력분야) CCS 관련 정보·인적 교류, 국제 공동 연구 과제 발굴
	탄소배출량 저감 기술 발전 및 상용화 MOU	CARBONCO	CO2CRC	▶ (협력분야) 탄소저감 기술 적용을 위한 실증사업 발굴
	한호 국경 간 CO <sub>2</sub> 이동 협력 MOU	SK E&S	Santos	▶ (협력분야) 한·호 국경 통과 CCS 사업 개발 관련 협력 추진

## 1. 추진 배경

- '80년부터 개최되어온 한국과 호주 양국 간의 실장급 협의체로서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의 공식적인 협력 창구
  - \* 제30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 : '21.7.8(목) ~ 7.9(금), 화상회의
  - \*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 : '22.8.22(월), 서울(대면회의)
-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이자 우리 광물 기업들의 최대 투자처로서 핵심광물·CCS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
  - \* 우리나라 對호주 광물자원 수입 비중 : 알루미늄광(72.4%, 1위), 철광(61.8%, 1위), 유연탄(50.9%, 1위), 망간광(48.9%, 1위), 아연광(24.7%, 1위), 연광(10.2%, 1위)
  - \* 한국의 누적 해외광산투자 규모 188억불 중 50억불(약 27%)이 호주에 집중

## 2. 협력위원회 일정

- 일시·장소 : '23.10.31(화) 09:40~15:00, 노보텔 시드니 온 달링하버
- 참석자 : 양국 정부, 유관기관 등 40여명
  - 수석대표 : (한)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호)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 Joe Evans 차관보
  - \*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Robert Jeremenko 차관보 대행은 호주측 부대표로 참석

## 3. 주요 의제

- (세션1) 에너지정책방향, 천연가스, 핵심광물 등
- (세션2) CCUS, 수소경제 등
- (세션3) 양국의 에너지국제공동연구 등 협력현황
- (세션4) 국경 간 CO<sub>2</sub> 이동 협약 체결 등 향후 협력방향